

다산포럼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나라가 산다



김정남 언론인

19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수도 이전 문제가 정권 차원에서 제기되었을 때, 육중의 김대중은 수도 이전이나 분할은 안 된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나 누구는 대통령선거에서 재미 좀 보려고 수도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누구는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행정복합도시라는 기형의 세종시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교단에서



김진구 우산중학교 교감

산 색깔이 조금은 멀게 느껴지고, 매미 소리가 가라앉게 들리면 여름의 무더위도 자빠지는 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여 절기(節氣)를 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습관이 경험적 교훈으로 축적되어 숙답 형식으로 전해 오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어갈 것 같다.

기고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

광주일보 보도(7월5일자 6면)를 보니 한국전력공사가 3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해 남광주변전소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이 부지는 전원공급시설로 묶여있어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남구청의 도시계획시설(변전소) 폐지 절차가 남아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생얼’은 안 돼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다. “아가, 봄이 되니 마스크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마스크를 썼니?” “.....”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냐, 미세먼지 때문이나?” “.....”

남광주변전소 부지 아파트 건설 재고해야

장은 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변전소가 들어선 1960년대 이후 받아 온 고압전류로 인한 불안감, 소음 등의 고통을 이제 헤아려 달라는 호소다. 어느 측의 주장이 맞을까.

생남한데 걸리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인의 미적 가치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2학기 개학하여 폭염특보로 단축수업을 하고 있는데 긴 소매 바지를 입은 학생들이 간혹 눈에 띄었다.

경술국치일

장은 지금처럼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원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두 주장 모두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측은 아파트 건설 주장은 재정확보 때문이다.

실을 들어가면 자신의 고교 3학년 때를 돌아보면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던 말씨.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 특히 초임이나 경력이 짧은 선생님들과 대화를 할 때 들려준 이야기이다.

무 등 鼓

“그러므로 집이 이에 결연히 내성(內省)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八域)의 민생을 보전하게 하니 그때대 대소신민들은 국세(國勢)와 시의(時宜)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社說

단순한 언론인 비리인가 우병우 감싸기인가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한 ‘초호화 외유’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62) 조선일보 주필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여제 회사에 의해 주필 보직에서 해임됐다. 나주 출신인 송 주필은 광주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8년 조선일보에 입사했으며 그동안 도쿄특파원, 워싱턴지국장, 편집국장, 신설주간 등을 역임했다.

농어촌버스 광주 노선 갈등 대화로 해결하라

요즘 광주 시내버스들이 안내문을 내건 채 운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안내문에는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를 오가는 농어촌버스의 노선 확대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지적한 대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언론사 주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의도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정권이 우호적이었던 조선일보의 경우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해 왔기 때문이다.

경술국치일

“그러므로 집이 이에 결연히 내성(內省)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八域)의 민생을 보전하게 하니 그때대 대소신민들은 국세(國勢)와 시의(時宜)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the title '無等鼓' and '경술국치일' (Gwangsu Gukchiil).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and a list of subscription rates for various regions.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the title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and a list of subscription rates for various regions.